제주사회복지신문

>2016년 8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06호

2017년 기초생계급여 올해 대비 5.2% 인상

2017년도 기초생계 급여가 올해 대비 5.2% 인상돼 4인가족 기준 134만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도 중위소득은 1.73%, 생계급여 기준은 기존 29%에서 30%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16년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을 보면,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는 179만원, 주거급여는 192만원, 교육급여는 223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지면소개

- 종합 ····· 2~3면
  제주형복지기준선 논의 시작해야
- 사회복지소식 ····· 4~5면
  저소득가정에 여름김장 나누기 행사
- 오피니언 ····· 6면
  시론·칼럼·기고
- 기획 ····· 7면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6)
- 특집 ····· 8면
  시설탐방(79) - 함덕지역아동센터

도내 12곳 지역아동센터 200여명 대상

찾아가는 원어민 외국어 교실 '호응'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로 신체의 여러 부위를 가리키며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도 덩달아 일어나 율동과 발음을 따라한다. 웃음기 가득 머금은 아이들의 얼굴은 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기 보단, 놀이에 푹 빠진 듯한 표정이다.

지난달 본격적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이하 원어민 교실)'의 수업 모습이다.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학습을 따라가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개별 사교육이나 가정 내 지도를 보충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정의 아동의 경우 타교과에 비해 외국어에 대한 사교육 등의 보충교육의 기회를 접하기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원어민이 직접 영어를 가르쳐 주는 외국어 교육사업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교실'을 시작했다.

원어민 교실 강의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12개소(서귀포 3, 제주시 9) 20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의에는 아동지도 및 외국어 교육이 가능한 학력과 경험을 갖춘 도내 결혼이주 여성 교사가 참여한다. 강의는 기본기를 튼튼하게 쌓는 것에 집중한다. 소리, 발음을 이해 하도록 하는 교수법인 파닉스 과정을 중심으로 하며, 원어민 강사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 듣기과 말하기에 익숙한 환경을 조성한다.

▲ 삼화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찾아가는 원어민 외국어교실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소그룹 운영 눈길
파닉스로 기본 다지고, 놀이교육으로 흥미 높이고

또한 아이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놀이요소가 가미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메이벨(도련동·36) 원어민 선생님은 "영어로 듣고 말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작은 성공에도 칭찬하고 격려하며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지도록 지도한다"고 말했다.

원어민 교실의 또 다른 장점은 학교·학원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소그룹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제욱(삼화초4) 학생은 "학교에서는 반 아이들 30여명이 한꺼번에 듣는 수업이라 발표를 하고 싶을 때도 참여할 기회가 적었다"며 "원어민 교실에서는 매 수업마다 여러 번씩 영어로 말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원어민교 교실에 대한 호응이 높다. 보통 센터에서는 운영비 중 10%가 프로그램비로 예산에 책정되나, 이를 가지고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영희(삼화지역아동센터)센터장은 "아이들에게 필요하지만, 여건상 어려웠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며 "현재 많은 시설들이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교육이 지속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JDCar 를 대여해 드립니다

이동약자의 발이 되어 드리는 복지용 특장차량 대여서비스

도내·외 사회복지시설(단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통한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JDC 지원으로 '복지용 특장차량(JDCar)'을 대여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단체) 비영리기관
×
지원용도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지원
×
승차정원 : 6인 (휠체어이용자 2명 탑승 가능)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064-702-3784)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도민 참여 통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논의 시작해야”

26일 서귀포시청서 토론회… 타 지역 사례도 발표

제주의 미래비전과 특성을 담은 복지기준선의 설정을 위해 도민 참여를 통한 논의가 시작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회 위성곤 의원실과 제주도의회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지난달 26일 서귀포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 광주, 서울 등 타 지역의 복지기준의 사례와 함의를 들여다보고 제주형 복지기준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위성곤 국회의원 및 강익자 제주복지공동체포럼 대표,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등과 도내 사회복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선, 강연에서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복지기준의 의미 및 세종시 복지기준이 제주도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를 발표를 통해 복지기준선에 대한 의의를 비롯 세종시민 복지기준의 추진과정, 비전과 목표, 세부사업 등을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세종시는 복지기준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복지예산 확대, 기준 달성을 위한 3단계 이행평가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복지기준선의 설정 및 성공여부는 시장, 도지사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복지기준에 대해 설명한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는 제주에서 복지기준선을 마련할 때, 제주만의 특성을 담아내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주의 경우 세계문화유산 등 많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원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제주의 특성에 맞춰 ‘문화’를 접목한 복지기준선 마련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지기준을 만든 서울의 사례도 소개됐다. 홍순옥(서울특별시 복지본부) 복지팀장은 “서울시의 경우 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및 1000인 원탁회의 등을 거치며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준을 만들었다”며 “특히 타 시·도보다 높은 물가, 서울 내 지역 간의 격차 등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사회복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청에서 열렸다.

제주형 복지기준선에 대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섰다. 고 위원은 “현재 제주의 복지정책은 상·하위 간 연계성 강화 미흡,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사업 의존성, 단기사업 위주, 민간협력 미흡 등이 지적된다”며 “제주의 복지기준을 만들기 위해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와 복지권 향상이 이뤄져야 하고, (가칭)제주형 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도민참여, 복지영역별 종합실태조사 등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 팁&톡 Tip Talk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으로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제10조)

사회복지인권사랑방 064)702-3783

8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 사 명	주 요 내 용	일 시 · 장 소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아카데미	•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 슈퍼바이저 과정 • 강의 : 한국사례관리학회 강사진	8.18(목)~19(금)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점	702-3784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활용교육 • 강의 : 사회보장정보원 파견강사	8.31(수)~9.2(금) 3회 교육 10시~16시 협의회 삼다수홀(2층)	
제주문화 예술재단	2016 문화예술교육 어시스터(Assistor) 양성과정 연수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론 및 체험	8.18(목)~20(토) 15시간이수 제주문화예술재단 6층 무료(선착순 접수)	800-9172
제주시건강가정 지원센터	제9회 한부모 가족사랑 Plus캠프 ‘우리, 지금만나?!’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자녀와 한부모가족 대상 여름캠프	8.20(토)~20(일) 빠레브호텔 무료(선착순 접수)	825-7015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복지마을작은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 학생부(초등, 중 · 고등), 일반부(대학생, 성인) 응모가능, 자유형식의 독후감 공모	9.9(금)까지 접수 아라복지관	702-4605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7월 기탁 현황

▲(주)금강축산유통=돈육 328kg ▲금산서당골=돈육 81kg ▲금강수산유통=수산물 60kg ▲구암불사=쌀 63kg ▲김치원=김치 30kg ▲꽃비나리는뜨락=떡 501개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 260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2848개 ▲서문식품=두부 530모 ▲얌얌영농조합법인=빵 61봉 ▲유진상사=오뚜기식품 997개 ▲싱싱부식=김치 60kg ▲자연드림 이도점=빵 83봉 ▲제주보리촌=보리빵 57개 ▲캣어클락=식빵 5봉 ▲파리바게트 동광초점=빵 171봉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 288봉▲대성수산=미숫가루 100개 ▲이든이네=건멸치 9kg ▲제성상회=햄 100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6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580,000	3,500,00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6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450,000	450,000
복 지 사 업 후 원	930,000	2,342,180
푸 드 마 켓 후 원	2,820,000	106,62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윤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자활기업 '맛드림', 밑반찬 전문점 창업

▲ 자활기업 맛드림사업단이 창업식 행사가 지난달 20일 열렸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 자활사업단으로 운영되던 '맛드림사업단' 이 지난달 1일 제주시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아 20일 창업식을 열었다.

자활기업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해 2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과 달리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창출한 일자리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매출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충당하게 된다.

201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3년여 동안 밑반찬제조, 매장운영, 납품 및 유통과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창업을 준비해온 자활기업 맛드림은 먹는 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착한기업이다.

맛드림에는 저소득주민 4명이 종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형마트와 식품유통업체 등 18개의 업체에 밑반찬을 납품하고 있다.

홍미순 대표는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정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며 "인생이모작이 시작되는 오늘을 기억하며 전진하겠다"며 창업의지를 밝혔다.

아라주공 승강기 준공 '가족한마당'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19일 오랜 기간 지역 숙원 사업이던 아라주공 아파트 승강기 준공을 기념해 '지역주민이 하나되는 가족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아라동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해 도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는 노인회와 청년회의 축하공연, 내외빈의 축사, 승강기 설치에 도움 준분들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됐다.

조성태 관장은 개회사에서 "승강기 설치로 층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이 편리해 질 것이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사업에 도움 준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필(Feel) 통(通)하다' 농아청년캠프 제주서 열려

2016 한국농아청년캠프가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청년회(회장 김주연)** 주관으로 지난달 9일부터 이틀간 제주 남국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됐다.

'농청년과 열정, 필Feel통通하다' 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전국 18세 이상 청각장애청년, 자원봉사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든벨게임, 해변레크리에이션, 자유토론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이 캠프는 미래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적극적이고 유능한 청각장애청년 양성을 목적으로 2년마다 지역별로 열리고 있다.

모아의원 조기현 원장 모닝 차량 기부

모아의원 조기현 원장은 지난달 23일 **창암복지재단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을 방문해 시설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모닝 차량을 기증했다.

조기현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의 발이 되어드리고자 차량을 기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실천에 앞장 설 것이고 더욱 참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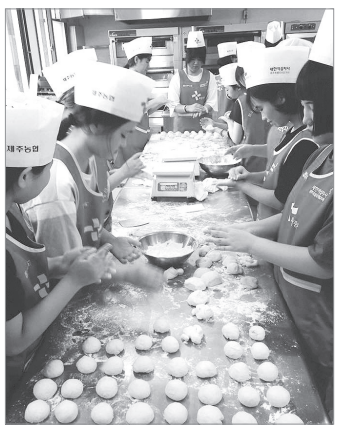
기증된 차량은 재활원 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병원진료 등 활동 지원하는 데에 이용될 예정이다.

중앙여중 학생들, 빵 만들어 푸드뱅크에 전달

제주중앙여자중학교(교정 김상철)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 150여개를 **제주광역푸드뱅크(대표 고치환)**를 통해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제주중앙여중학교 학생 24명은 적십자에서 진행한 자원봉사체험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하나하나 곱게 빚고 구운 빵들을 제주광역푸드뱅크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빵들은 한아름전문요양원으로 지정기탁됐으며, 당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제공됐다.



제주중앙여중 전미희 선생님은 "아이들이 손수 만든 빵이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전해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정신장애인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강좌를 올해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정신보건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론강의, 현장실습, 사례컨퍼런스 3단계로 진행되며 전 과정 참여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아산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도광역정신건강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아동 효(孝)의식 함양·강화 인형극 공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인 '아동의 효(孝)의식 함양 및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인형극' 의 첫 공연을 지난 19일 애월읍에 위치한 어도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

'행복한 지게'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인형극은 미취학 아동 및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총 14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 공연은 도내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효(孝)의식 함양 및 강화를 통해 화목한 가정생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저소득가정에 여름 김장 나누기 행사

서귀포지역 1230가정 대상… 자원봉사자 160여명 참여

서귀포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만들기 행사가 지난달 23일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관장 임태봉)**에서 열렸다.〈사진〉

9개 읍면동 장애인지원협의회, 자원봉사자 등 총 160여명은 이날 서귀포지역 저소득가정(1230가정)에 전달할 김치 담그기에 일손을 보탰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김치 나누기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하고자 준비됐다. 특히 이번 김장김치 나눔행사는 상대적으로 기부량이 많은 동절기가 아닌, 하절기에 진행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경제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공헌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주)라임글로브(대표 최혁준)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지난달 26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와 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 내용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정보의 제공, 업무연계 및 협조, 상호 협의를 통한 사회공헌사업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추자 지역 주민 대상 방문 이동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협회장 윤홍기)에서는 추자면사무소(면장 고창덕) 협조로 지난달 7일부터 이틀 간 추자도를 방문해 '2016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을 운영했다.〈사진〉

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영락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주관한 이번 이동복지관은 협회 소속 250여명과 추자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무용, 레크리에이션 등의 문화복지공연과 복지욕구 상담, 염색 서비스 등의 부스운영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또한 방문기간 중 협력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미리 신청을 받은 추자도 내 110여 가정에 대해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 등기구 교체 서비스를 진행했다.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와 보조기구센터에서는 행사장에서 직접 보조기구 신청접수와 상담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주)제주킹스토아 동문점에서도 물품을 후원하는 등 지역민의 욕구에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잠재 예술 역량 개발 프로그램 실시

정혜재활원(원장 이홍기)은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잠재된 예술적 역량을 개발하는 '신통방통 공연단과 함께 즐겨보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공연관람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난타, 댄스, 국악 교육활동이 매월 3~4회 실시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현장학습 체험 공연관람과 도내공연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중증 장애인 대상 '우리끼리 두드림'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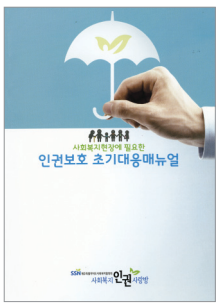
제주케어하우스(원장 홍영진)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주문화예술교육사업 '우리끼리 두드림' 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며, 배움에 대한 욕구는 많으나 기회가 부족한 시설거주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폭 넓은 여가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총 25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우리끼리 두드림' 은 주 활동인 난타활동과 민요 배우기를 비롯해 탈 만들기 등 미술을 응용한 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뇌병변중증장애인 오명철(가명) 씨는 "평소 접해보지 못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북을 때리며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다"며 "여건이 된다면 내년에도 우리끼리 두드림 활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권보호 초기대응 매뉴얼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인권사랑방(위원장 고관용)이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인권보호 초기대응 매뉴얼(이하 인권보호 매뉴얼)' 을 발간했다.

인권보호 매뉴얼은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초기대응 미숙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문제의 본질이 희석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인권보호 매뉴얼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의미를 비롯 이용인, 종사자별 인권침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인권보호 매뉴얼은 폭력, 학대, 성폭행, 성희롱 등 유형별 인권침해의 구체적 사례를 밝히며, 사실관계 파악 방법, 신고방법(기관), 신고의무자, 내부보고, 사후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피해자가 종사자인 사례와 사후조치 방법을 기재해,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비영리 재능기부 단체 '더희망제주' 오지만 대표 인터뷰

"취약계층 교육지원 등 봉사 펼칠 것"

'더희망제주(대표 오지만)'는 학원교육자, 공연기획가, 조각가, 학생, 의사선생님 등 다양한 이들이 모여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3년차부터 20년차까지 다양한 봉사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달 23일 더희망제주의 이야기를 듣고자 오지만 대표를 만났다.

'더희망제주'의 시작은 오 대표의 발품에서 시작했다. 오 대표는 도내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수년전부터 여러 사회기부단체를 통해 물적기부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던 중 오대표는 물적기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청소년 교육 봉사단이다. "학생들이 중심이 돼, 치매어르신들의 뇌운동 활성화,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나서는 재능기부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봉사가 방학과 시험기간까지 계속 될 순 없었죠. 함께 할 봉사단을 찾아다니게 된 이유에요"

오대표는 동분서주했다. 공백기도 매우고, 수혜자 입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봉사도 하기 위해선 다양한 봉사자를 찾아야 했다. "SNS를 통해 알리기도 하고, 서로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받기도 했어요. 고맙게도 주변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기간 봉사를 해오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게 모인 봉사자만 벌써 8개 분과에 230명이다. 봉사단은 청소년 교육봉사, 음악봉사, 미술·환경봉사 총 8개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현재 단원들은 매주 8곳의 시설을 찾아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약 10여개의 시설을 더 찾아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 왼쪽부터 김순제(청소년교육), 이민정(행사운영기획), 이승희(멘토기획지원) 단장, 오지만 대표, 허영미(미술·환경지원) 단장 모습.

오대표는 "수혜자가 원하는 맞춤형 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열악한 환경의 시설을 찾아 진정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소/식/마/당

사랑 나눔 단합대회 '손에 손 잡고'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지난달 23일 제주시민회관에서 '2016 C.V.S. Family 사랑 나눔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합대회는 식전공연, 우수자원봉사단체, 후원자에 대한 표창을 비롯해 어울림한마당 등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원봉사와 후원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친목도모 및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오일장day' 홍보 캠페인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7일과 2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방문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알리는 '오일장day'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내 주요 오일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오일장day' 홍보 캠페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상담, 심리치료 등 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열리고 있다.

아모렉스리조트와 협약 체결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대표이사 오덕철)과 아모렉스리조트(대표 현승남)가 지난달 15일 취약계층을 돕기위한 협약을 맺었다.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아모렉스리조트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조손가정아동에 장학금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기관은 취약계층 지원에 함께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캠프

제주시가 후원하고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김정숙수녀)가 주관한 '2016년 제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합캠프'가 지난달 7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남원읍 금호리조트에서 실시됐다.

제주시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개 기관에서 총 150여명이 참가한 이번 연합캠프는 물놀이, 레크레이션, 단체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이 진행됐다.

'장애극복상' 표창 수상

일배움터(원장 정춘진) 직업훈련생 소부환씨가 지난달 4일 지적장애인 날 기념식에서 장애극복상 표창을 수상했다.

소 씨는 일배움터 작업활동프로그램반 원예 초화사업에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작업ACTIVE센터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쿠키/견과류 작업훈련의 훈련생으로 소속돼, 취업의 길에 도전을 하고 있다.

'패밀리 스킨십' 체육대회 개최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지난달 4일 '에너지up! 체중down! 건강up! 트라이앵글' 체육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패밀리 스킨십 프로젝트'를 주제로 가족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체육대회는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즐겁게 땀을 흘리며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발달장애청소년 당사자모임 실시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8회기에 거쳐 발달장애청소년당사자모임 '자기결정능력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제주고등학교 특수교육반 학생 10명이 구성원이 돼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모임형성을 지원해 자기결정능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재해수욕장 자연정화활동 진행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벧엘(임주리 원장)에서는 여름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제주도의 명소인 협재해수욕장을 찾아 자연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정화활동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자연지킴이단'이라 명명된 종사자와 거주인들은 한림항구 인근과 한림읍 한수리 일대를 다니며 바다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시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아이를 양육하거나 어르신을 수발하는 일인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던 일이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내 부모, 내 아이의 일이었기에 당연히 가족구성원이 감당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여졌었고, 또한 대가족 구조였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가족중심의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역사에 있어,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효'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2008년에 제도가 도입된 후 8년이 지나면서 법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장기요양사업에 뛰어들어 서비스 제공기관이 난립하는 상황이 되었고, 등급판정과 수가책정 등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설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돌봄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필요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다.

'돌봄의 사회화' 이뤄진 사회

돌봄은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은 누군가를 먹이고 씻기고 단순히 돌봐주는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 궁극의 지향점인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세끼 식사를 기계적으로 먹이는 것과 영양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성껏 식사수발을 하는 것이 동일한 행위인지를, 코를 막고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과 배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상을 존중하면서 배설케어를 하는 것이 동일한 행위인지를... 따라서 하는 일에 대한 본질과 그에 따른 절차를 잘 아는 숙련된 사람들이 돌봄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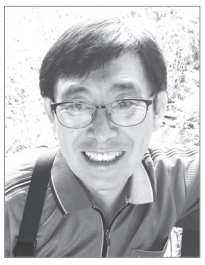
돌봄, 인간 존엄을 지키는 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요양보호 관련 업무가 기피업종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이 가려지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마치 가해자인양 죄책감이 든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어르신을 돌보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다.

돌봄 종사자가 자신이 하는 일, 즉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기고 |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원시설 우수근무자 연수기

여행은 언제나 설렌다



김형택
사랑의집 재활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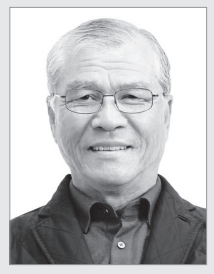
지난 6월 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우수근무자해외연수'에 뽑혀 8년간 사랑의 집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동안 첫 해외 연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중국 상해, 계림, 양삭 4박 5일 간의 여행은 내가 사회복지사 근무자로써 자부심을 높여 주었고 나를 한 층 더 성장시킬 수 있었다.

첫날 비행기 지연으로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되긴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즐거운 여행이었다. 그 중 계림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볼 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이강은 계림의 강이름이다. 계림의 봉우리는 석회암 잔구로서 옛날 산호와 조개 무덤이 쌓여 바위로 변한 곳으로 카르스트 지형이다. 원래는 바다였으나 지각 변동으로 육지가 되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 산들이 모두 비에 녹고 씻기는 현상이 지금도 진행 중이며 세계에서 드문 탑 카르스트 지역으로 구경할 가치가 높다. 계림의 남쪽에 있는 관암동굴은 2인승의 모노레일을 타고 길이 2km 인 종유 동굴안에는 석주, 석순 등이 멋진 장관을 이룬다. 세외도원은 풍치가 매우 좋은 곳에 나룻배를 타고 유람하는 곳으로 무릉도원에 견줄만 하며 신선되는 맛이 있는 절경산수이다. 인상유삼제 또한 야간 빛쇼로 강을 사이에 두고 사방 봉우리(20여미터 높이)에서 빛을 쏘아 모든 과정을 연출하는 쇼이다. 내 눈이 휘둥그레 질 정도로 쇼가 무척 예술적이었다.

많은 일정 중에 기억에 남는 건 해외연수에 함께 참여한 18명이 뗏목타고 물총싸움을 한 것이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물총싸움으로 몸은 젖었지만 한층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짧은 여행을 통해 18명의 참가자는 힐링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랑의 집에서 근무하면서 퇴직을 앞둔 나에게 여행이란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 앞으로도 누군가에게도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칼럼

새를 바라보라



김길웅
시인 · 수필가

서울 살이 한다고 반포의 한 아파트 9층에 세 들었는데, 밤잠을 못 자 몹시 시달린 경험이 있다. 나 혼자 몸이 허공에 붕 뜬 것 같아 한동안 혼났다.

고소공포증으로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나도 꽤 심각한 편이다. 중국 장가계 돌계단을 오르며 현기증에 혼쭐이 났었다. 가파른 꼭대기까지 다리 휘주근하게 올라야 하는 계단, 눈 아래 기암괴석들이 우쭐거리며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깎아지른 벼랑에 서 있는 소나무들은 암벽에 뿌리박아 무슨 근기로 풍상을 견디는가. 또 그 허공에 돌계단을 깔아 놓은 중국인들의 근기. 한데 허둥거리는 나는 무언가.

도시에서 빌딩의 숲을 걸으며 의아해 하는 게 있다. 하늘을 찌를 듯 치솟은 빌딩의 유리창은 어떻게 닦을까. 페인트칠은? 갖은 장비를 동원하겠지만 어차피 사람이 벽에 매달려야 하는 일이라 상상하니 아찔하다.

메모수첩을 뒤적거리다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라는 글을 읽는데, 눈이 번쩍 띈다.

오늘의 작업 줄이자, 내 목숨이 걸린 8밀리 로프. 안전판에 앉고 나면, 나는 결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다. 그건 주인아저씨한테 배운 것이다.

유리창 닦는 사람, 아래 내려다 보지 않아

"초보 때는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거래이. 눈은 항상 빌딩 꼭대기나 하늘을 바라보라꼬. 지나가는 구름이나 새를 보래이. 새 날개를 띄워 주는 바람도 보고…"

아득히 높은 빌딩 유리창을 닦는 사람, 특히 초보자는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다고 한다. 고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겁에 질려 온몸이 화석같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맞다. 아파트 9층에서 그것도 벽에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잠을 자려 누웠는데 공중에 붕 뜬 것 같았으니, 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로프를 띄우고 아래로 줄줄 내린다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 온다.

삶과 목숨을 빌딩 벽에 매달아 놓고 일하는 청소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못할 일이다. 현대식 빌딩들이 벽을 온통 대리석으로 두르는 이유를 알겠다. 페인트칠은 하지 않아도 될 게 아닌가.

시의 계시인가. 어떤 손이 나를 툭 치고 지나며 말한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듯, 흘러간 과거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지나간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지 말라고.

거듭 힘준다. "새를 바라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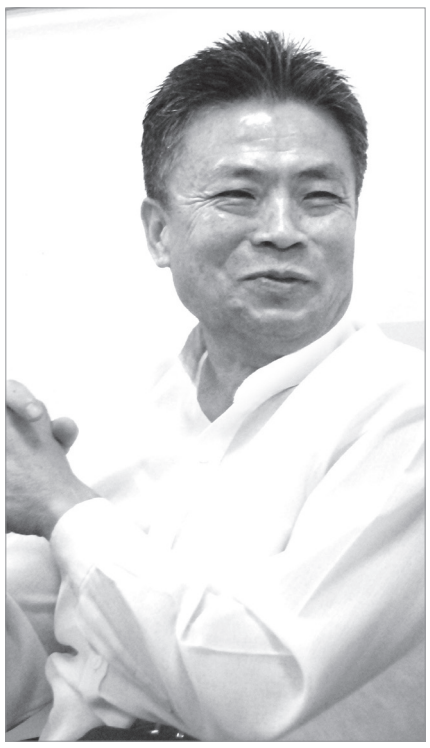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❻

자원봉사활동의 수준은 사회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지 오래다. 특히 사회복지현장에서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았다. 제주지역 사회복지현장에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키워 오고 있는 고태언 사무처장(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원석철 회장(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을 '제주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에서 만나 보았다.

고태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중증장애인 30여명과 함께 한라산 등반 잊지 못할 것"



고태언 처장(이하 고 처장)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76년부터 4H 활동을 통한 농촌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3남 3녀 중 막내였지만 장애가 있었던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막내 티를 내는 것은 꿈도 꾸지 못 할 일이었다. 그런 탓에 무슨 일이든 끝장을 봐야 했던 그의 성격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큰 밑천이 되었다.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 그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중증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라산등반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된다. 무려 3박4일의 일정동안 중증장애인 30여명의 등반을 도우며 한라산 정상에 오른 것. 그 날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그는 당시 찍었던 사진을 휴대폰에 간직하고 있다. 그 일을 계기로 등반에 함께 했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1988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에 '한아름봉사단' 이 조직되고 초대 단장을 맡으면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문봉사활동의 길을 열게 된다.

당시만 해도 지체장애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이동을 위한 보조기구의 마련. 고 처장은 '한아름봉사단' 의 사업으로 1일 찻집을 열어 휠체어와 목발을 구입하고, 낡은 목발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 보지 못했다는 지체장애인분들이 늘 눈에 밟혔던 그는 직장 생활으로 마련한 비용으로 승합차를 할부로 구입한다. "20대 중반이 되도록 집 안에서만 살다가 그날 처음 영화를 보고 다방이라는 곳을 경험한 지체장애인의 밝은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 그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 그가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던 시절, 중증장애인부부가 제주에 신혼여행을 오는데 여행기간 동안 그들을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결국 그들을 돕지 못한 일은 지금도 부끄러운 일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두 번 다시 자신을 부끄럽게 할 수 없어 결국 2005년도에 시센터 내에 '장애인 관광도우미센터' 를 설치한다. 무슨 일이든 끝장을 봐야 하는 고 처장 특유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 후에도 보건복지부를 들락거리며 어렵게 설치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가 홀몸 어르신들의 여생을 돕는데 기여하고 있어 그에게는 큰 보람이다.

▲ 1988년 장애인들과 함께 한라산 정상에 오른 고태언 처장의 모습(오른쪽 끝)

현재 제주지역 13만 8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으로서 그의 고민은 자원봉사활동의 '순도' 를 높이는 일이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자원봉사에 대한 열정으로 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현장에서 땀을 흘렸던 그였기에 그가 바라는 자원봉사모범도의 꿈은 꿈으로만 그치지 않는 현실이 되리라 기대한다.

원석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회장

"자원봉사 할수록 즐거워 오늘도 멈출 수 없어요"

그의 빛바랜 자원봉사자 카드에 기록된 첫 봉사활동일은 1987년 11월 11일, '자원봉사' 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했을 시기 그는 "어릴 때부터 지체장애가 있는 사촌형님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한다.

그가 처음 자원봉사활동을 한 곳은 당시 제주시 화북동에 있던 제주시립희망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주지역에서 자원봉사회가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다닌 첫 사례가 아닌가 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자원봉사조직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했던 시기였고, 시설 입장에서도 자원봉사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몰라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환경은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노하우를 쌓아가고 그들끼리 협력하며 자원봉사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기회가 되었다. "함덕에 있는 아가의집에 봉사활동을 가려면 버스를 타서 함덕해수욕장 입구에서 내려 걸어 올라갔어요. 가는 길에 경운기라도 얻어 탈 수 있었으면 운수 좋은 날이었죠. 그래도 정말 즐겁게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원석철 회장의 모습.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에게 있어 재가어르신과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대낮에 '나이트클럽' 에서 행사를 치렀던 '어르신 효도잔치' 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해 보고 싶은 활동으로 손꼽힌다. "마땅한 행사장소가 없어 고민 끝에 섭외하게 된 곳이 나이트클럽이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분들의 욕구도 젊은 우리와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경험이 이후에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는 스스로를 자원봉사에 '중독' 된 사람이라고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즐거워지고 삶의 용기가 생기는 탓에 도무지 멈출 수 없다고 한다. 앞으로 그는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에 더 애쓰고 싶다고 한다. "시내 한 복판 주택가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 원석철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의 본업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그처럼 '자원봉사자' 라는 명찰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그 보다 더 자원봉사자 명찰이 잘 어울리는 이들이 나타나 우리 사회가 더욱 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해 본다.

〈정리 - 김성건 사무국장〉

시설탐방 ▶ (79)함덕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꿈 키우는 포근한 둥지로 거듭날 것"

균형 잡힌 교육 통해 '행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자원봉사자, 후원금 등 부족… 도민 관심 필요

▲ 함덕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특수목적형 사업,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프로그램 및 건강한 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아이들의 힘찬 '날개짓'을 돕는 '포근한 둥지' 같은 지역아동센터가 되고 싶어요" 지역아동센터를 표현해달라는 말에 나온 '둥지'라는 단어가 참 따뜻하다. 마을 내 오소록 한 골목 한 곳에 위치한 **함덕지역아동센터(센터장 명혜숙)**. '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삼육재단 함덕지역아동센터의 설립은 이영호 초대 센터장과 명혜숙 현 센터장 부부가 2006년도 초등학교를 다니던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시작됐다. 부부는 같은 반의 절반 정도가 한부모·조손가족이라는 자녀의 말을 듣고,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무슨 소용인가' 라는 마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준비하게 된다.

명 센터장은 유아교육을 전공했다. 제주색동회 회원으로 동화구연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다. 센터가 추구하는 아이들의 미래상은 '행복한 글로벌 인재'다. 이를 위해 센터는 균형 잡힌 교육 프로그램과 영어교육, 자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센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문화 아동이 많다는 점이다. 현원 27명 가운데 8명이 다문화 아동이다. 센터는 이런 특성을 감안, 다문화 특수목적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아동을 위한 학습지원강사를 두고 있고, 부모와 함께하는 만들기·여행 프로그램 등도 준비 중이다.

7년째 외국인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올라간 점도 자랑거리다. 매일 진행되는 수업으로 아이들은 영어 공부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접하고 있다.

이외에 눈에 띄는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과 '건강한 급식'이다. 센터는 정서안정과 감수성 향상을 위해 바닷가, 숲길, 오름 등을 매주 다니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접하도록 한다. 또 인성은 먹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인스턴트를 배제하고, 견과류와 과일을 곁들인 급식을 준비한다.

그러나 함덕지역아동센터의 고민은 시외 지역에 위치해 있어선지, 자원봉사자와 후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해부터, 센터의 임대료가 부족한 상황. 함덕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내년이면 운영 10년째를 맞는 센터.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을 묻는 질문에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운영 초, 분노조절이 어려웠던 아이가 있었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어떤 날은 너무나 심해, 방으로 데려가 꼭 껴안아줬어요. 더 심하게 저항했지만, 있는 힘껏 계속해서 껴안아 줬죠. 그 아이가 나중에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나에게도 이런 엄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아이는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됐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해요"

마지막으로 명 센터장은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주눅 들지 않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더 넓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품는 둥지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33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황 인 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양질의 직장을 판단하는 근거로 흔히 '4대 보험'이 되는지를 따져본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하는데 앞의 3가지 보험은 근로자도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산재보험은 다소 생소한 면이 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중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평소 보험료를 납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출·퇴근 사고 보상 어려워

따라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의 사고도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가 해당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가 된다.

최근 대법원은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다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받으려면 일상적인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를 넘는 수준에 달해야 하는데 한달 정도의 휴무 없는 근무라도 저녁 8시 이전 퇴근이라면 업무강도가 세지 않아 일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